

# 동양제철화학 3세 경영수업 시작

이수영 회장 장남 이우현 전략기획본부장 임명 ... 계열분리도 완료

동양제철화학이 이수영 회장의 장남 이우현 씨를 경영일선에 나서게 해 3세 경영체제 준비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화학업계에 따르면, 동양제철화학은 창업주 이회림 명예회장의 장손이자 이수영 회장의 장남인 이우현 씨를 8월1일 단행된 인사에서 전략기획본부장(전무)으로 임명했다.

이우현 씨의 동생인 이우정 씨가 계열사인 불스원에서 영업담당 상무로 일해왔으나 이수영 회장의 장남이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동양제철화학그룹은 최근 이회림 명예회장의 차남 이복영씨가 동양제철화학 사장에서 계열사인 삼광유리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3남인 이화영 씨는 계열사인 유니드 회장을 맡도록 하는 2세 경영구도 조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

2세간의 계열 분리가 확정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수영 회장의 장남이 주력기업 임원직을 맡게 되자 호화학계에서는 이수영 회장이 신속하게 3세 경영에 대비한 사전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8/02>